

진도씻김굿·명인명무전... 토요 국악무대 '풍성'

국립남도국악원 토요상설 공연

한달간 다양한 전통 종합공연 내달 1일 첫 공연 '국악의 향연' 장애인 단체 '사람사랑' 무대도

남도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신명나는 국악공연이 펼쳐진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4월1일부터 4월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대극장 진악당(진도)에서 토요상설 공연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4월 토요상설은 전통 종합공연 형태로 다양한 내용이 다뤄진다. 4월1일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의 '국악의 향연'이 포문을 열고 이어 △4월8일 류무용단 초청공연 '상상(想像)하는 우리 춤' △4월15일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 '진도씻김굿' △4월22일 장애인문화예술공동체 사람사랑 초청공연 '그림에도 불구하고' △4월29일 기획공

연 명인·명무전 '완생(完生)' 등이 예정돼 있다.

첫 공연으로 예정된 4월1일 '국악의 향연'은 사계절의 첫 시작인 봄날을 맞아 낙양의 봄을 노래한 '낙양춘'부터 '심청이 태어나는 대목', 가야금독주 '술', 여창가곡 '계락, 편수대엽', 가야금병창 '호남가, 화초타령', '포구락', '정우수류 버들부포놀이'를 감상할 수 있다.

이어 4월8일에는 형식화된 무대라는 틀을 벗어난 류무용단을 초청해 공연을 진행한다. '상상(想像)하는 우리 춤'은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주제로 전통춤을 색다르게 해석한 공연이다. '상상(想像) 부채춤', '상상(想像) 강강술래' 등 새로운 시각에서 전통무용을 선보인다.

4월15일은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의 '진도씻김굿'을 준비했다. 생전 좋지 못했던 기억, 마음 깊은 곳의 앙금을 씻어줘 영혼이 수월하게 저승으로 건너갈 수 있게 돕는 굿인 '진도씻김굿'을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으로 국립남도국악원의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 잡았다.

4월22일에는 장애인 문화예술공동체 사람사랑 초청공연으로 '그림에도 불구하고'를 준비했다. 통영오광대 중 '문등춤', 시각장애인 참빛누리꾼들의 '사물놀이', 시각장애인 소리꾼 최예나의 적벽가 중 '새타령' 등을 공연한다. 특히 아쟁연주자 김영길 명인과 김청만 명고가 함께 공연을 꾸밀 예정이다.

4월29일은 기획공연 명인·명무전 '완생(完生)'으로 4월의 마지막 공연을 꾸민다. 기획공연 '완생(完生)'은 국수호 명무, 김덕수 명인, 문정근 명무, 서영호 명인을 초청해 이 시대 최고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서영호 명인의 '김일규류 아쟁산조'를 시작으로 김덕수 명인의 '장구 산조', 문정근 명무의 '전라삼현 승무', 국수호 명무의 '전라입춤'을 선보인다. 이번 무대는 완전한 예술을 이룬 명인·명무의 공연으로 꼭 채워진다.

올해 진행되는 2023 국립남도국악원 토요상설 '국악이 좋다'는 지난해와 달리 오후 3시에 공연되며, 점심 식사 후 국립남도국악원을 방문하면 수려

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진악당(공연장) 로비에서 실감형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전시와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다.

국립남도국악원 관계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 문화공간 국립남도국악원을 방문해 공연, 전시, 체험까지 즐기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 전후 진도 읍내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을 위해 12월까지 공연 스탬프 쿠폰 이벤트를 진행해 참여한 관람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http://jiindo.gugak.go.kr>), 또는 전화(061-540-4042, 장악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도선인 기자

↓국립남도국악원이 지난달 선보인 3월 토요상설 공연의 모습.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광주문화재단이 '아이조아 가족기자단'을 모집한다. 사진은 지난해 활동 모습.

광주문화재단 제공

광주문화재단 '아이조아 가족기자단' 모집

지역문화예술 현장 취재 행사 우선 초대 등 지원

광주문화재단이 광주에 거주하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우리지역의 문화행사와 예술인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광주문화재단 아이조아 가족기자단'을 모집한다.

선발된 가족기자단 5팀은 발대식과 기사 작성 기초 역량교육을 거친 후 광주문화재단 아이조아 가족기자단으로 본격 활동하게 된다.

광주문화예술 곳곳 현장소식을 취재, 재단 블로그에 게재하고 다양한 SNS 홍보 콘텐츠로 편집, 활용된다.

기자단에게는 소정의 활동비와 위촉장

및 기자증 발급, 재단 주최 행사 우선 초대를 비롯해 역량강화 워크숍, 사진 촬영, 기사작성 편집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 공지사항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4월2일까지 이메일(syan01@gjcf.or.kr)로 접수하면 된다.

'아이조아 가족기자단'은 광주문화재단이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엄마랑 아이랑 문화기자단'을 개편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엄마와 아이뿐만 아니라 아빠, 이모, 고모 등 가족구성원 참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도선인 기자**

제14회 광주비엔날레 홍보대사에 '최시원'

슈퍼주니어 멤버 한류 열풍 선도

제14회 광주비엔날레 홍보대사에 슈퍼주니어 멤버이자 배우 최시원(사진)이 선정됐다. (재)광주비엔날레는 오는 4월7일 개막하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를 국내외에 알릴 홍보대사로 최시원을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재단 측은 제14회 광주비엔날레 홍보대사 선정과 관련해 광주비엔날레만이 지닌 차별화된 고급스러움에 친근한 이미지를 더하기 위해 한류 문화를 선도해 온 아이돌 출신으로 후보군을 좁히고 접촉해왔다.

2005년 슈퍼주니어 멤버로 데뷔한 최시원은 18년 활동 기간 동안 가수와 배우, 공연 무대 등으로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왔다. 최시원은 세련되고 절제된 이미지와 함께 친근함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다양한 관람객 층을 아우르고 다양성을 지향하는 광

주비엔날레 브랜드와 부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슈퍼주니어는 아시아와 남미 등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더욱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한류 열풍에 기여하고 있다.

최시원은 "아시아 최대 권위의 미술축제인 광주비엔날레 홍보대사로 위촉돼 영광스럽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미술의 도시 광주와 한국을 세계 속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광주비엔날레 측은 행사 기간 아시아권 젊은 층 관람객 유입이 증가하는 '한류스타 최시원 효과'와 함께 한국의 현대미술이 세계 속에 알려지는 'K-ART'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선인 기자



국립광주박물관, 학술출판 협력기관 선정

은암미술관 등 4곳

국립광주박물관은 지역 소재 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술출판 협력사업에서 고충분청문화박물관, 강진고려청자박물관, 은암미술관, 의재미술관 등 4개 기관이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전문 주제로 연구서를 펴낼 예정이다. 연구서 주제는 각각 △고충

분청문화박물관 '덤병분청, 고흥에서 꽃피우다' △강진고려청자박물관 '전라병영성 600년' △은암미술관 '빛고를 경양방죽·물길의 역사와 문화' △의재미술관 '그림의 본으로 삶의 본이되다Ⅱ'로 정해졌다.

이번 협력사업은 광주·전남지역 내 박물관과 미술관의 도록 및 각종 연구서 발간을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지난 2022년

처음으로 추진돼 5개 협력관이 선정됐으며 국립광주박물관과 협력해 도록 5권을 공동 발간한 바 있다.

이예령 국립광주박물관장은 "이번 학술출판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가 품고 있는 다양한 학술자료들을 발굴하고 양질의 도록 및 연구서 발간으로 호남지역 박물관(미술관) 균형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며 "학술자료를 공유해 박물관(미술관)의 학술연구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全南日報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와 함께 하세요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